

# 순교성인을 찾아라!!!



“이번달이 무슨 성월인지 알고 있겠지?”



“당연하죠!!  
순교자 성월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교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봐!!!”



“아는 순교자는??”

“김대건.....안드레아...?”

“아는 성지는?”

“.....”

“또!!”



“그럴 줄 알았지...  
너희를 위해 선생님이 준비했다!!!  
따라와~~~~”



## 카드소개

'순교성인을 찾아라!'는 4종류의 카드로 구성된 게임이야.  
어떤 종류의 카드가 있는지 살펴보자!

## 게임방법

그럼 이제부터 '순교성인을 찾아라!'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 <순교성지 카드> 총 20장

우리나라의 순교성지가 적혀있는 일반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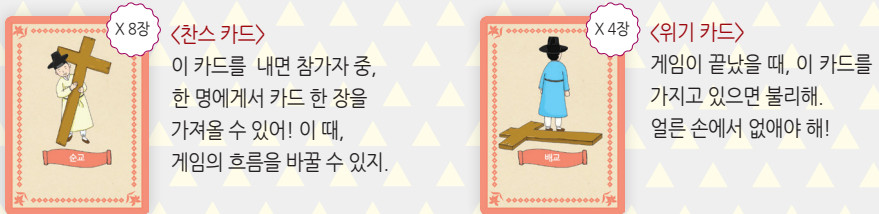
### <순교물품 카드> 총 20장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과 관련된 일반카드.



### <순교 / 배교 카드> 총 12장

특수카드! 이 카드를 때문에 게임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 <순교성인 카드> 총 4장

가장 중요한 카드! 이 순교성인 카드를 마지막까지 들고 있어야 승리하게 돼!



### 승리 조건!


첫 번째 승리조건 : '순교성인' 카드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카드를 없애야 한다.  
두 번째 승리조건 : 게임이 끝났을 때, 내 손에 '순교성인' 카드가 제일 많아야 한다.

---

첫 번째 패배조건 : '배교'카드가 있다.  
두 번째 패배조건 :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 패배 조건!

**Rule 1.** 모든 참가자는 카드를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 남은 카드는 뒷면이 보이게 중앙에 둔다.

**Rule 2.**  오른쪽으로 한 명 씩 돌아가며 카드를 중앙에 내려놓는다.  
- 카드를 낼 때는 뒷면이 보이게! 카드의 이름과 장수를 외치며 내야 해~

**Rule 3.** 한 번에 낼 수 있는 카드의 수는 최대 4장이다.

**Rule 4.** 앞서 사람이 외친 카드와 같은 종류만 낼 수 있다.  
- 첫 번째로 시작하는 친구가 '배론'을 외치고 카드를 내면, 두 번째 친구도 '배론'을 외치면서 카드를 내야 해.  
- 첫 번째로 시작하는 친구는 아무 카드나 외치면서 낼 수 있겠지?

**Rule 5.** 낼 카드가 없다면 '패스'를 외치고 순서를 넘긴다.  
- 모든 친구가 '패스'를 외치며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중앙에 쌓인 카드는 게임에서 제외하고 (치우고) 순서상 다음 친구가 새로운 카드를 내면 돼~  
ex) 4명이 게임을 하는 경우, 3번 친구가 '용기'를 외치면서 냈는데, 4번, 1번, 2번, 3번 친구가 모두 '패스'를 외쳤으면 4번 친구부터 다시 새 카드를 내며 게임을 계속하는 거야.  
- 게임에서 제외된 카드들을 살펴보는 것은 No~No~~

**Rule 6.** 카드를 낼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 내 앞의 친구가 나에게 없는 카드만 낸다면, 나는 내 카드를 없앨 기회가 없겠지?그럴 때는 '배론' 카드 두 장과, '배교' 카드 한 장을 내면서 '배론 3!'을 외칠 수 있어.



※ 물론 '배교' 카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카드를 섞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응기' 카드 세 장을 내면서, '배론 3!'을 외치는 엄청난 친구가 나타날 수도 있지~  
 ※ 카드의 '종류'는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장수'는 거짓말 할 수 없어!

**Rule 7.** 카드를 내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면, 누구든지 '뺑!!'을 외칠 수 있다.  
 - 다음 사람이 카드를 내거나 패스하기 전까지만 '뺑'을 외칠 수 있어.  
 - 카드를 낸 친구는 '뺑'을 외친 친구에게만 낸 카드를 확인시켜주면 돼~



※ '뺑'을 외쳤는데 '거짓'일 경우, 카드를 낸 사람이 그동안 쌓인 중앙의 카드를 모두 가져간다.  
 ※ '뺑'을 외쳤는데 '진실'일 경우, 뺑을 외친 사람이 그동안 쌓인 중앙의 카드를 모두 가져간다.

**Rule 8.** '순교'카드는 앞 사람이 낸 카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낼 수 있다.  
 - 순교카드를 내면 참가자 중 한 명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아올 수 있어. 만일, 나에게 '순교성인' 카드가 없다면 '순교' 카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순교성인' 카드를 가져와야 하겠지? '순교성인' 카드가 있을 것 같은 친구를 잘 살펴봐야 할 거야~  
 - 다른 친구의 카드를 가져온 후, 앞 사람이 낸 카드와 상관없이 다른 종류의 카드를 내도 돼. 이 때문에 '순교'카드는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찬스카드지.

**Rule 9.** '배교'카드만 단독으로 내려놓을 수 없다.  
 - 게임이 끝날 때 '배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꼴찌가 돼! 당당하게 '배교!!'라고 외치며 카드를 낼 수 없으니, 'Rule 6'처럼 거짓말을 잘해서 안 들리게 내야겠지?

**Rule 10.** '순교성인' 카드만 남았다면, 다음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찬미 예수님!'을 외치고 게임을 끝낸다.  
 - 손에 '순교성인' 카드만 남기고 모든 카드를 내려놓았다면, 바로 내가 1등!!!!



**Rule 11.** '순교성인'카드 없이 손에 든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친구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게임은 승패없이 종료 된다. 그리고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친구가 다음 게임의 선이 되어 진행한다.

순교 카드 속 이야기!

지금부터 각 카드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



신해 박해 이후 신자들이 신앙을 키워 나간 교우촌이야. 황사영이 토굴 속에 숨어 백서를 집필한 지역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론 신학교가 소재했던 곳이야. 또한 조선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토마스의 분묘가 있지.



조선 고종 때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한 순교지이며 '부산의 골고타' 라고 부른다고 해. 복자 이정식 요한, 양재현 마르티노를 비롯한 8명이 이곳에서 순교하셨어.



병인박해 당시 순교자들의 머리를 잘라 한강에 버렸던 곳이라 하여 절두산이라고 해. 당시 흥선대원군은 "서양 오랑캐로 더럽혀진 한강의 물을 천주교인의 피로 씻어야 한다."며 박해를 추진했어. 병인박해 100주년을 기념하여 성인 유해실, 성당 등이 있는 순교 기념관을 개관하였어.



갈매꽃 성지는 일몰이 아름다운 서해 바닷가 앞에 있어. 전국에서 유일한 바닷가 성지라고 해. 고종의 국혼 때문에 '한양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하여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천주교인을 처형했다고 해.



나바위 성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상해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로를 통해 입국을 시도하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며 어렵게 첫발을 디딘 축복의 장소야. 그래서 '첫 마음의 성지'라고 부르기도 해.



예수회 중국 선교사 마태오 리치 신부님이 저술한 천주실의는 중국인 학자와 서양인 학자의 대화체로 구성된 최초의 한역 서학서야. 조선의 학자들도 이 책을 통해 서학을 알게 되었고, 이를 연구함으로써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어.



순교자 김범우 토마스의 집으로 한국교회 최초로 신앙집회가 열린 장소이며,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드리거나 설교를 들었다. 김범우 토마스가 순교한 지 100여 년 뒤에 이곳에 명동성당이 들어서게 되었지.



천주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깊은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어. 천주교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 만든 공동체가 바로 교우촌이야. 이곳은 서양 선교사들의 은신처였고, 신자들의 피신처였지.





백서는 순교자 황사영이 토굴에 숨어서, 흰 비단에 신유박해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쓴 밀서야.  
이 밀서를 복경에 있는 주교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도중에 적발되었고, 이때부터 천주교인을 향한 박해는 더 심해졌어.

**백서**  
순교자 황사영이 1801년 당시의 박해 상황을 기록해 두는 장문의 비밀문서.



교우촌의 신자들은 생계를 위해 웅기를 빚어 팔았어. 이 웅기에 천주교 신자만 알 수 있는 문양을 새겨, 장터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확인하며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

**웅기**  
박해당한 교우들이 신자가 문양이 새겨진 웅기를 팔아 생필품.



솔밭에서 태어나셨으며 모방 신부님에 의해 신학생으로 발탁되어 마카오에서 신학 교육을 받으셨대. 그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 되셨어. 상해 김가항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조국에서 사목 활동을 하다가 25세의 젊은 나이로 새남터에서 순교하셨어.

**김대건 안드레아**

한국 최초의 사제, 김가항성당, 순교하신.



실학을 공부하다 서학을 접한 이승훈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천주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라몽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아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가 되었어. 이승훈 베드로는 명례방 공동체에 참가하였으며, 신자들에게 세례와 견진성사를 집전하기도 했어. 이후 서대문 밖 형장에서 참수되었어.

**이승훈 베드로**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 신유박해, 순교하신.



유대철 베드로는 부친 유진길 아우구스티노와 천주실의의 영향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어. 반면 어머니와 누나는 천주교를 반대하여 괴로워했다고 해. 유대철 베드로는 기해박해 당시 부친을 포함해 많은 교우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자수를 했어. 힘든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배교를 거부하였으며, 103위 성인 중 가장 어린 나이에(14세) 순교한 성인이야.

**유대철 베드로**

한국 최초의 순교자, 가장 어린 나이인 14살에 순교하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김효주 아네스는 천주교를 싫어하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의 권유로 형제 여섯 명과 함께 천주교 신자가 되었어. 기해박해 때, 언니 김효임 골롬바와 함께 체포되어 서소문에서 참수되었어.

**김효주 아네스**

언니 김효임 골롬바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24살에 순교하신.

이제 9월하면 '순교자 성월'만 생각나는 건 아니겠지? 

게임을 하면서 '순교'에 대해 잘 알게 되었지? 이 외에도 순교 관련한 교리는 많으니 찾아보기를 바라~ 오늘날에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일은 없지만, 이번 한 달은 순교자의 마음을 본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사랑을 바치는 **Cum**친구들이 되길 바라!!

게 임 명	순교성인을 찾아라!	게임종류	카드게임
적정인원	4~6명	적정연령	14~18세
제 작	천주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